

세탁기박사 조성진 LG전자 사장



살림 좀 한다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모터 들어간 가전제품은 LG전자 걸 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모터가 생명인 세탁기를 선택할 때, 입에서 입으로, 닳글에서 닳글로 번져나가는 얘기다. LG전자의 세탁기가 주부들에게 전폭적인 인기를 얻게 된 데는 현재 LG전자의 생활가전을 책임지고 있는 조성진 사장의 공이 누구보다 컸다. 그런 조 사장이 직접 LG전자 트롬 세탁기 브랜드 광고에 모델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세탁기의 역사를 만든 기술명장

조성진 사장은 용산공고 졸업 후 1976년 LG전자(당시 금성사)에 입사, 지난 36년간 오로지 세탁기 개발에만 전념해왔다. 100% 일본 기술에 의존했던 당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세탁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공장 안에 간이침대와 주방시설을 놓고 공장에서 먹고자며 제품 개발에 몰두했던 일, 일본 기술을 배우겠다고 150차례나 일본을 방문하며 독학으로 일본어를 통달했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이런 노력으로 최초 통돌이세탁기 개발, 세탁통에 모터를 디렉트로 장착한 DD모터 개발, 세계 최대 용량 드럼세탁기 개발, 세계 최초 듀얼스팀 드럼세탁기 개발, 세계 최초 DD모터를 이용한 6모션 세탁 기능, 세계 최초 3방향 터보샷 기능 등 수많은 '세탁기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은 세탁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주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주부들이 원하는 '고장 없이 오래 쓰는 세탁기', '손빨래를 한 듯 세탁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세탁기', '이불도 척척 빨아주는 대용량 세탁기'를 탄생시켰다. 광고에서는 '기술명장' 조성진 사장을 통해 LG 세탁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LG 세탁기 기술 개발 역사는 세계 세탁기 기술 개발 역사

사실 조성진 사장의 광고 나들이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98년 세탁기연구실장이었던 당시 '터보드럼 세탁기' 광고에 직접 출연해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기술을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도 했다.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LG전자'와 최고의 세탁기 '트롬'을 알리자는 사명감으로 모델 제의를 수락했다는 조 사장은 "LG 세탁기 기술 개발 역사는 세계 세탁기 기술 개발 역사라 지칭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기록들을 만들어왔다"며, "98년 광고 촬영 이후 1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전세계 세탁기 시장을 이끄는 LG의 세탁 기술을 알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LG 세탁기에 대한 조 사장의 자부심을 증명하듯 2012년 미국 시장에서 출시한 세계 최대 용량의 21kg 드럼세탁기(모델명 WM8000)는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정보지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에서 드럼세탁기 부문 평가 1위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수지 susie@kaa.or.kr

